

1

1월의 양돈관리

새해에는 종돈장과 인공수정센터의 PRRS를 청정화하자

새해라지만 이런 저런 걱정이 많다. 돈가는 제자리 걸음이고 폐사는 많으며 사료값은 계속 오른다. 농장마다 비상이다. 이렇게 가다간 얼마나 많은 농장들이 문닫을 지 모르겠다. 또 어느 농장들은 아직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점차 양돈농가의 경쟁력도 이원화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 하긴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다. 아무리 레드오션 산업이라도 경쟁력이 충분하여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블루오션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여 도태되는 업체들도 있다.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우리 업계가 많이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제대로된 시스템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선진 양돈국들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우리나라 양돈업이 성장하려면 먼저 양돈 산업의 구조적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강조하는 사람이다. 나 혼자만 잘해서 잘 키우고 수익성이 좋았던 시절은 이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질병이 많으므로 좋은 수의사가 곁에 있어야 하며, 좋은 사료를 공급해 줄 사람도 있어야 하고, 경영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농장들의 규모가 커지고 양돈업이 복잡 다단해 지면서, 농장주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던 시대는 지났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들은 아웃소싱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는 좋은 우리나라 양돈산업 시스템이 되어야 만 해결될 것으로 본다. 필자가 방문하는 농장들에 있어서 좋은 사양관리, 좋은 시설도 필요하지만 좋은 위생 방역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부분이다. 좋은 방역은 우선 외부 도입 돼지가 좋아야 하며, 외부 도입 돼지는 후보돈과 정액이다. 그런데 간혹 후보돈과 정액의 품질에 이상이 있어서 문제의 해결이 늦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사실, 질병학적으로 안전하고 강건성과 생산성이 모두 갖추어진 종돈을 찾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 상황을 언급하고 넘어가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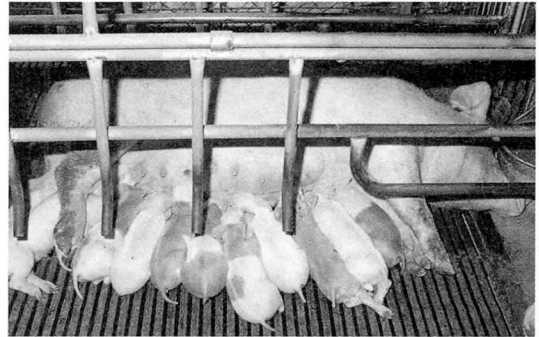


김 경 진 원장
돼지와 건강 수의그룹

우리나라 종돈, 질병학적으로 안전한가?

우리나라에 200개가 넘는 종돈장이 있다. 인공수정센터도 무수히 많다. 문제는 질병학적으로 안전한 종돈장이 과연 몇 군데인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특정 질병(특히 PRRS)에 안전한 종돈장은 몇 군데 안 된다. 농장마다

몇몇 질병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고객농장으로 종돈을 분양하는 종돈장과 인공수정센터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질병들이 없어야 한다. 싸코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 없는 농장이 없다고 하니 종돈장에 있다고 해도 무시할 수 있다. 또한 싸코 바이러스가 존재한다고 해서 꼭 PMWS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PRRS 바이러스는 많은 종돈장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 이렇게 PRRS에 오염된 종돈 때문에 일반 농장들이 오염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 폐사의 상당부분 책임은 종돈장들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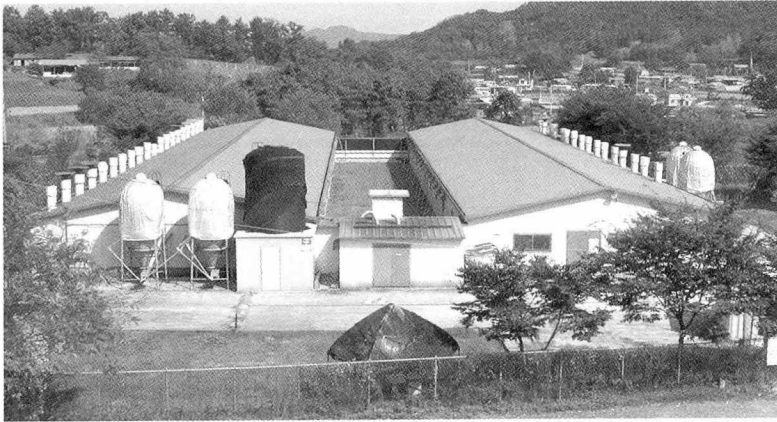
또 일부 종돈장들은 자신의 농장에 PRRS가 존재하므로 종돈 분양을 중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종돈장의 경영주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 종돈 분양을 안 하면 경영적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전체 양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분양을 중단해 주시니, 고맙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종돈장들이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종돈을 계속 분양하고 있다. 이러면 솔직히 우리나라의 질병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양돈 전문 수의사들은 직시하고 있다. 결국 종돈으로부터 유입된 질병이 일반농장에서 큰 폐사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2,3월부터는 종돈장과 인공수정 센터들의 질병 성적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한다. 이는 앞으로 양돈업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실, 일반 농장들에서는 종돈장의 문제를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였고, 대처가 미흡하였다. 여러분의 농장에 자돈사 폐사 문제가 있다면, 구입 후보돈의 질병 상황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가 있는 종돈장들은 질병을 청정화하자.

필자가 작년에 양돈수의사회 연례 세미나에서 종돈장의 PRRS 청정화 기법을 소개한 적이 있다. 또한 일부 종돈장들에도 청정화를 시도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컨설팅 그룹에서는 종돈장과 인공수정센터의 PRRS청정화를 시도하여 좋은 결과들을 거두었다. 앞으로 이런 농장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점점 많은 수의사들과 종돈장들 그리고 인공수정센터들이 PRRS의 청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양돈 매체들에서도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 기법들은 다양하다. 농장의 시스템과 여건에 맞추어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여러가지 방법들도 소개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PRRS의 청정화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들 뿐이다. 물론 양돈 전문 수의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농장주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진다. 질병학적으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할 수의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필자가 연구하고 시행한 몇몇 농장들은 대부분 좋은 결과들을 얻었다. PRRS가 종돈장에서 사라지면서, 비단 종돈의 품질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각종 생산 지표들도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번식성적, 육성율, 성장율 등등에서 모두 좋아진 것이다. 이는 PRRS가 비단 호흡기 문제 뿐 아니라 번식장에도 일으키며 면역성에 문제가 되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정화가 된 농장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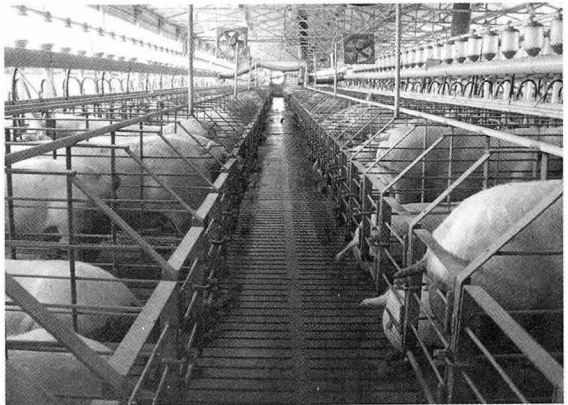


생산성도 상승하지만, 생산비도 절약되는 이중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청정화에 들어간 비용보다 많게는 10~20배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이다. 필자가 가장 먼저 청정화를 시도한 농장은 현재 MSY가 약 21.5두 정도 유지되고 있다. '08년에는 22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

하고 있다. 이는 청정화에 들인 비용을 단기간에 회수하고도 남는 이익이 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과연 농장 경영주가 의지있게 추진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 만약 이 글을 보는 종돈장 관련자가 있다면 반드시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PRRS 청정화가 경제성이 있는가?

많은 종돈장들이 몰라서 시도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시도를 못하기도 한다. 앞에서 미리 언급하였지만, PRRS의 청정화는 비단 종돈의 품질 문제 뿐 아니라 그 농장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PRRS가 청정화되면 일단 자돈사 폐사가 4% 이상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육성기에 폐사 문제가 있는 종돈장들이라면 반드시 청정화 내지는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종돈장이 아닌, 일반 농장에 PRRS 청정화를 시도해 본 적도 있는데, 음성과 양성인 상태의 자돈사의 육성율, 성장율은 현격하게 차이가 났다. 일례로 PRRS양성일 때에는 폐사가 같은 3% 라도 70일령 평균 체중에서 약 3kg정도 차이가 났다. 이는 경이적인 차이이다. PRRS가 이런 정도의 생산성에 차이를 준다면, 비단 청정화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안정화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내가 보기에 소모성 질환중의 상당수가 PRRS와 연계되어 있으며, 앞으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우리는 본격적으로 생산성 경쟁, 질병과의 전쟁, 생산비 감소 전쟁을 치루어야 할 입장이다. 당장에 사료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요즘 농장들의 현실이지만 PRRS의 청정화가 정말로 농장의 경영 지표와 생산 지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면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양돈**